

무항생제 사육 성공사례_

'내추럴포크연구회'

취재/ 홍보팀

먹거리의 안전성이 강조되다 못해 이제는 충분조건이 돼버린 상황에서 최근 무항생제 돼지 사육이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무항생제 사육이라 하면 사료첨가제 등을 포함해 모든 항생물질을 농장에서 사용하지 않고 농장내로 들여오지도 않으면서 농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도드람양돈조합 소속의 8개 농가로 구성된 '내추럴포크연구회'의 무항생제 사육 성공사례를 취재했다.

비항생물질의 사료첨가제와 환경관리로 항생물질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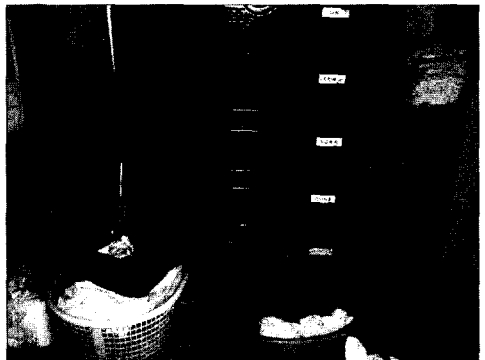
'내추럴포크연구회'를 지난 1월 결성한 이 8개 농가는 2002년 6월부터 무항생제 사육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해 동해 10월부터 기초적인 준비과정에 돌입했다.

이후 12월부터 무항생제 사료를 도드람양돈조합에서 생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무항생제 사육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6월 무항생제 사육돼지를 성공적으로 출하하기 시작했다.

보다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무항생제 돼지사육에 참여하는 농가의 HACCP 인증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으며, 6월중에 완료할 계획에 있다.

무엇보다 사료에 첨가되는 항생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관건이었을 터.

도드람양돈조합은 항생제를 제거하기 위해 항생제 대체물질을 사용했고, 질병발생과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 환경·위생관리에 중점을 두었으



▲ 내추럴포크연구회 의 한 소속 농가 옷장에는 칸칸마다 방역복 등이 분리 수납되고 있다.

무항생제 사육 성공사례, '내추럴포크연구회'

며, 철저한 기록분석을 중점으로 관리했다.

시험농장은 모두 철저한 기록과 분석을 실시했으며, 차단방역, 위생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온도, 습도, 환기 등 온사 환경관리를 강화했으며, 면역검사, 도축돈의 장기 검사 등 수시로 각종 검사를 실시했으며, 최적의 백신과 사료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또한 각 개체마다의 면역력 증강을 위한 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치료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를 봉침으로 대체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차단방역에 있어 외부인 및 차량에 대한 농장출입을 제한하는 한편 철저히 기록하도록 했으며, 방문자는 샤워후 농장을 출입하고 약품 및 도구등의 반입창고를 확보해 자외선 등을 설치했다.

생산체계에 있어서는 임신사를 수시로 확인해 온도차를 최소화했으며, 그룹별로 약품의 사용과 반입, 재고량 등을 확인토록 했으며, 표준화된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질병전파 원인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설치류 구서제의 종류, 사용일자, 살포위치 등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돈군위생관리를 위해 '도드람 2500 매뉴얼'이라는 사육환경관리 지침을 따르도록 했으며, 도태돈이나 폐사돈을 별도로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사료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급이기, 사료빈, 사료라인 등의 청소주기, 방법 등을 매뉴얼화해 준수토록 했으며, 연4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 무항생제 사료를 이용하면서 정기적인 소독, 내·외부 구충 등 기본적인 환경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면역력 확보를 위해 봉침 이용

항생제 사용을 금지할 경우, 면역력 확보가 가장 큰 문제로 자리하게 된다.

이번 무항생제 사육에 성공한 농가들은 면역증강을 위해 사료에 면역활성물질을 첨

가하는 한편 봉침기술로 항생제를 대체했다.

봉침기술은 생후 1일 교소와 제대혈에, 거세를 실시하는 생후 3~5일령에 거세부위와 콧등에 실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무항생제 사육에도 불구하고 일반 농가에서 우려하는 폐사율 증가 등의 결과 대신 오히려 폐사율이 낮아지고, 사료요구율이 낮아졌으며, 일당증체 또한 증가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봉침비용을 포함한 방역비가 본격적으로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한 2002년 12월 대비로 2003년 12월이 오히려 비용이 낮아졌다고 전했다.



▲ 외부인과 차량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통해 항생물질의 농장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사료비 상승하지만 출하단가로 상충돼

출하 두당 사료비용이 2,216원에서 많게는 8,354원 가량 증가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출하돈육이 기존 브랜드육 대비 30%의 고가로 판매되고 있어 상충된다고 말했다. 현재 무항생제 돼지를 출하하고 있는 농가는 A,B 등급에 대해서는 두당 20,000원, C 등급에 대해서는 10,000원의 단가를 더 지급받고 있다.

2004년 5월 현재 8개 농가 중 5개 농가만이 출하를 하고 있다.

항생제를 사용하는 대신 항생물질을 대체하기 위해 킬레이트 미네랄 형태의 사료첨가제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료단가가 kg당 20여원 정도 상승한다고 도드람 관계자는 말한다.

사료 단가가 올라가 생산비가 상승해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출하단가를 높게 받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현재 일반 브랜드 돈육보다도 높게 받고는 있으나, 보다 차별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항생제 사육 성공사례, '내추럴포크연구회'

적극적인 뒷받침과 보상이 필요

'내추럴포크연구회'는 매주 모여 컨설팅을 받기도 하는 등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

무항생제 사육에 참여하고 있는 2,000두 규모의 한 농장 관계자는 처음에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사료를 급여하면서 폐사가 조금 있기는 했지만 수질관리 등 환경관리를 강화하면서 폐사가 줄었다고 전했다.

백신과 소독 등의 기본사항을 준수하면서 보다 환경관리에 열을 다하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경제성을 최대한 살린 돈육 생산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무항생제 사육이 보다 활기를 띠기 위해서는 군 이상 단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료단가의 상승은 자칫 생산비 상승으로만 그칠 수 있어 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추럴포크연구회'는 향후에 HACCP 인증을 마무리 짓고, 유기축산 개념을 도입하는 등 고급 돈육 생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는 8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나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농가들의 참여를 유도해 차년에 15개 농가로 참여농가 수를 증가할 계획이나 희소가치를 높이기 위해 많은 참여는 지양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현재 '내추럴포크연구회'는 법인 발기를 위한 준비과정을 진행중이며, 종돈의 통일을 위해 공동구매를 위한 작업도 진행중이다.

안전한 먹거리의 공급은 이제 필수 조건이 됐다.

이같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항생제를 대체하기 위한 많은 물질들이 출시되어 있고, 앞으로도 무궁한 개발과 제품 출시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어떠한 물질이 정답이라고는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분명 백신접종과 소독 등 기본적인 조건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필수조건과 더불어 생균제 등 항생제 대체물질을 사용해 항생제 잔류문제를 지양하며 친환경축산을 선포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⑤



▲ 내추럴포크연구회 소속 농가들은 매주 모여 컨설턴트를 초청, 기술 컨설팅을 실시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